주요개념 : 모유수유지식, 모유수유태도

일부 농촌지역 영아모의 수유형태에 따른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과 태도 비교 연구

심 미 경* · 김 미 종**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모유는 생후 초기부터 영아에게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완전식품으로서 모유수유는 영아사망율을 감소시키고, 소화기 감염이나 호흡기 감염, 알레르기 질환으로부터의 질병예방 효과와 건강증진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어머니에게도 수유 중 자궁수축을 촉진하고 유방암 발생을 감소시키며 어머니와 아기와의 상호작용을 증진하는 계기를 마련해주어 애착형성과 긍정적인 모아관계를 증진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정금희, 1996).

모유수유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모유수유율은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1960년대에 95%였던 모유수유율은 1970년대에 94%, 1980년대에 68.9%로 감소하였으며 1990년대에는 35.4%까지 저하되었다(이경혜, 1992, 대한간호협회, 1995).

최근 우리 나라에서는 대한간호협회, 유니세프 등을 중심으로 감소되고 있는 모유수유에 대한 자각과 더불어 모유수유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인간의 초기 삶인 영아기에 최상의 영양이 공급되도록 하여 일생에 있어 성장의 기초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도인 것이다. 부가적으로 모유수유 건강아 선발대회나 병원에서의 모자동실 운영 등 모유수유 확산 운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의 모유수유율은 아직도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어 모유수유 증진을 위한 다각적인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모유수유율의 감소는 몇가지 요인과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핵가족화에 따른 가족제도의 구조적 변화, 모유수유에 따른 불편감에서 벗어나려는 심리적 저해요소, 모유수유에 대한 정보부족, 남편이나 가족의 지지 결여, 대중매체를 통한 분유회사의 과대광고, 분만 후 산모와 신생아를 격리시키는 병원제도 및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 등의 환경적 저해요소를 들 수 있다(오현이, 박난준, 임은숙, 1994; 이미자, 1995; 김혜숙, 1995).

이 중에서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의 깊이와 정확성은 모유수유의 성공에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고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부족은 모유수유를 하려는 동기와 직접적인 실천에 큰 영향을 미치

* 신성대학 간호학과 교수
** 대전대학교 간호학과 강사

게 된다(최영희, 김혜숙, 박현경, 이영희, 1996). 모유수유에 대한 정보부족은 어머니들이 모유수유에 도전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며(김혜숙, 1992) 분유회사의 과대광고 등의 영향으로 인공유가 모유보다 영양학적으로 우수하다는 잘못된 인식은 모유수유율이 저하되는 요인이 된다. 이런 모유수유에 대한 부정확한 지식이나 불신은 부정적인 태도를 형성시켜 모유수유를 저해하게 된다. 모유수유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유수유를 하고자 하는 어머니의 욕구와 모유를 먹이겠다는 신념과 태도라고 볼 때(김화숙, 1991) 모유수유의 우수성에 대한 지식을 포함한 지지적 교육을 통해 모유수유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변화가 초래되었을 때 비로소 모유수유를 하려는 태도로 나타나게 되며 이런 어머니들의 태도에 따라 모유수유 실천율은 달라진다고 하겠다(조미영, 1992).

따라서 본 연구는 아직까지 모유수유에 관한 실태파악이 안되어 있는 일부 농촌지역의 모유수유 실천의 주체자인 영아모의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과 태도 및 관련요인을 파악하여 모유수유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간호중재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2. 연구의 목적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확인한다.
2) 연구대상자의 모유수유에 관한 지식과 태도를 확인한다.
3)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별 모유수유에 관한 지식과 태도를 확인한다.
4) 모유수유부와 비모유수유부의 모유수유에 관한 지식과 태도의 차이를 확인한다.
5) 모유수유 지식과 태도간의 관계를 확인한다.

3. 용어정의

1) 모유수유

영아에게 모유만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비모유수유

영아에게 모유를 전혀 공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3) 모유수유지식

모유수유 지식이란 모유수유와 관련된 지식 전반으로서 모유수유의 장점과 모유수유 방법 등에 관한 지식으로 본 연구에서는 모유수유 지식 질문지에서의 점수가 높을수록 지식이 높은 것으로 간주한다.

4)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

영아 부모가 가지고 있는 모유수유에 대한 신념과 행위수행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평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모유수유태도 질문지에서의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본다.

II. 문헌고찰

1.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

모든 여성은 생물학적으로 자기의 아기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건강한 여성은 원하는 경우 거의 대부분 모유수유를 할 수 있다(Martines & Zoysa, 1992). 과거 전통사회에서 모유는 거의 유일한 신생아 및 영아의 영양 공급원이었고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모유수유를 받아들여 왔으나 1965년 우리 나라에 처음 분유가 소개된 이후에 점차 변하기 시작하여 1970년대 초 서울에서의 모유수유율이 88.2% (지미숙, 강길원, 1974)이던 것이 1994년에는 전국 평균 28.8%(박인화, 황나미, 1994)로 60년대 말과 비교하여 1/3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감소하였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국가적인 관심과 의료인의 노력으로 높은 수준의 모유수유율을 유지하고 있고 특히 스웨덴, 핀란드, 스위스 등의 유럽에서는 1970년대 후반부터 90%를 상회하는 모유수유 실천율을 달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반해(박인화, 황나미, 1994) 우리나라의 모유수유율은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한다.

모유수유는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본능은 아니며 유즙의 생성과 분비는 고도로 복잡한 신체기능에 의해 일어나고 모유를 먹이기까지 아기의 신경운동이 잘 조정되어야 하며 어머니와 아기의 호흡이 잘 맞아야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종의 학습과정이다. 과거 대가족제도 내에서 모유를 먹이는 것을 관찰할 기회를 가졌던 여성들은 이를 역할모델로 삼아 자연스러운 학습이 이루어지게 되나 현 사회의 가족구조가 핵가족화 되면서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할 기회나 모유수유를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감소되어 역할모델을 통한 사회적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Eastham et al.(1976)은 모유수유를 하는 모습을 볼 기회가 많았을 때 향후 모유수유 의사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으며 미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신선숙(1985)의 연구에서도 모유수유 광경을 볼 기회가 있었거나 영아를 안아 준 경험이 많고 그 느낌이 사랑스러운 집단에서는 향후 모유 수유 희망률이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런 모유수유에 대한 사회적 학습이 없는 현대에는 모유수유에 관한 정보제공자로서 건강 전문인의 역할이 기대되며(김혜숙, 1992) 성공적인 모유수유를 위해서는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이 우선되어야 하고 모유수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모유수유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가 없는 여성들은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결여나 출산 후에 따르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조건 때문에 모유수유에 대한 자신감을 잃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나(이경혜, 1992) 모유수유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은 신념과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게 되어(Kearney, 1988) 모유수유 실천율이 높아진다.

김숙영(1994)은 모유수유를 실시한 군에서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이 우유수유군보다 높았으며 이것으로 지식이 수유실천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고 하였고, 신희선과 전미양(1996)은 산모를 대상으로 모유수유 결정 관련요인을 조사한 연구에서 모유수유 결정 집단이 인공수유 결정 집단보다 지식점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지식이 모유수유를 결정짓는데 중요한 예측변수라고 하였다. 오현이, 박난준, 임은숙(1994)은 모유수유 저해요인에 관한 분석에서 산전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부족으로 모유수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든지 분유광고를 보고 분유와 모유가 비슷하다고 느껴져 모유수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들었다. 또한 신선숙(1985)이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향후 영아 영양법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인공수유를 하려는 이유에서 '아기를 튼튼하게 해준다'가 44.4%였으며 '모유보다 영양가가 많다'도 많은 비율을 차지하여 모유수유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권은경(1982)은 서울지역과 일부 농촌지역의 모유수유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에서 인공영양을 하게 된 이유로는 모유량의 부족과 어머니의 직업 외에도 서울지역에서는 병원에서 분만 즉시 우유를 먹였다는 것과 농촌에서는 우유가 더 좋은 것 같다는 이유를 들고 있어 일부 농촌지역에서 모

유에 관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영아의 영양에 대한 지식원에서 교육서적이나 잡지를 이용한 어머니들이 많았고 농촌지역에서는 매스콤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나 언론을 통한 모유수유 홍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Gulick(1982)은 초산모가 모유수유를 1개월 이내에 중단한 경우와 1개월 이상 지속한 경우를 비교한 결과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이 높을수록 모유수유에 성공적이었음을 보고하여 모유수유에 관한 정보제공이 모유수유 실천에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Rentschler (1991)은 모유수유에 관한 정보의 깊이와 정확성은 모유수유 성공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으며 모유수유를 시도한 여성의 50% 정도만이 성공적으로 모유수유를 하였는데 낮은 성공율은 정보의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라고 보았다.

이런 모유수유에 대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Brown et al. (1960)은 인공수유를 선택한 어머니들의 모유수유를 하지 않게 된 이유로 정서적 요인, 실제적 요인, 신체적 요인을 들고 있는데 정서적 요인으로는 어머니의 불안이 모유에 영향을 미쳐서 아기에게 해로울 수 있으며 아기가 얼마나 많은 양을 섭취했는지 판단할 수 없고 모유 수유를 유행에 뒤떨어진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며 유방을 노출하고 있는 동안의 당혹감 등을 제시했다. 실제적 요인으로는 편리함, 억매임으로 부터의 자유, 남편이나 다른 사람과 수유책임을 나눌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고 신체적 요인으로는 체형의 변화, 의복으로 모유가 누수됨으로 인한 불결함 등을 제시하고 있다. 최영희 등(1996)은 모유수유 저해요인을 첫째, 산전 · 산후관리면(모유수유에 대한 지도부족, 잘못된 정보와 지식에 의한 장애) 둘째, 지지자원부족(배우자나 가족에 의한 격려부족, 지도결여) 셋째, 병원구조와 실무면(모아분리와 모유수유 전문간호사의 부족) 넷째, 모유대체식품의 증가(분유과대광고, 우유병의 조기도입 등) 다섯째, 사회구조적 요인(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 증가, 핵가족화추세, 역할모델 부재 등) 여섯째, 모성의 건강상태(모유부족, 영양상태, 모성의 질병, 유방이상, 제왕절개분만증가, 모성의 심리상태 등) 일곱 번째, 아기의 건강상태(황달 등 아기의 질병, 아기가 젖을 싫어하는 것) 여덟 번째, 여성 의식구조 변화를 들고 있는데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부족을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김혜숙(1995)은 많은 연구에서 제시한 모유량 부족은 크게 문제되지 않으며 교육을 통해 모유수유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제공하고 모유수유를 하고자 하는 욕구를 높이고 자신감을 주어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하였다. 정귀영과 이근(1983)의 연구에서도 도시층, 부유층, 교육수준이 높은 층에서 젖이 부족해 모유를 조기 중단하는 것으로 나타나 젖이 모자란다는 자체가 순수한 모성의 질병이나 심한 영양실조에 기인한다기 보다는 산모의 주관적 판단, 적극적인 의지력 부족 및 지식의 결여, 보충식이의 조기시작 등의 원인도 많음을 지적하고 있다.

산모의 모유수유에 대한 결정은 산후에 즉각적으로 결정되기보다는 임신중에 모유수유에 대한 지지적인 교육을 받는 기회를 통하여 모유수유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변화가 초래되었을 때 비로소 모유수유를 하려는 태도로 나타났다고 하여(송규희, 1989) 예비 어머니의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사정을 통해 산전관리와 분만직후에 모유수유 격려로 모유수유가 촉진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에서 모유수유에 대한 의료인의 관심도가 낮아 모유수유에 대한 지도와 활동이 결여되어 있는 실정임을 밝히고 있다. 김화숙(1991)은 모유에 대한 정보의 습득이 전체 대상자의 68.9%가 육아책이나 잡지에서 9.4%가 의료인에게서 얻은 것으로 나타나 의료인들의 모

유수유에 대한 관심도가 낮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미자(1994) 역시 모유수유에 대한 정보의 획득은 의료전문인(의사, 간호사)보다는 어머니, 책이나 신문, 인척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하여 의료인들의 적극적인 교육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조미영(1992)은 모유수유율의 감소 및 모유수유 지속의 실패율 증가는 의료전문인들의 책임과 관련되며 산전관리에 대한 교육부족, 간호사의 모유수유에 대한 관심부족, 분만후 모자 분리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한 과거에 모유수유 경험이 있는 여성일수록 그 다음 아기에게도 모유수유 비율이 높게 나타나 영아 수유 형태란 한번 정해지면 다음 수유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므로 (송규희, 1989) 현재 수유 중에 있는 어머니들에게도 일단 시도한 모유수유를 지속시킬 수 있도록 계속적인 교육을 통한 올바른 정보가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수유계획은 분만 전에 보통 이루어지므로 예비 어머니들인 임신부에게 출산 전에 모유수유의 장점, 모유수유를 위한 준비과정, 모유수유시의 어려운 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등을 포함한 폭넓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2. 모유수유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

많은 연구에서 모유실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모유수유를 하려는 의지와 신념을 가진 어머니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김화숙(1991)은 모유수유를 성공적으로 실천하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 중에서 어머니가 모유수유를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야 하며 모유수유를 향한 어머니의 신념과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방매륜(1983)의 연구에서는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과 여성인 어머니로서의 돌봄 역할에 대해 적응능력이 있느냐에 따라 모유수유를 실천하는 태도가 형성되는 것으로 보았다. Gulick(1982)은 모유수유의 성공여부는 모유수유 과정에 대한 지식과 조기준비에 의존하며 모유수유에 대해 영아의 어머니가 얼마나 소명감을 갖느냐에 따른다고 하였다. 정혜경과 이미라(1993)는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유형을 3가지로 분류하였는데 모유수유가 어머니된 도리로서 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며 여성의 역할 중 가장 의미있는 일로 받아들이는 모성본능 추구형, 모유의 장점이나 모유수유가 모아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때문에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의 결과로 모유수유를 하는 합리추구형, 모유에 대한 장점과 엄마된 도리로서 모유수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나 처해진 환경과 상황에 따라 가변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편의추구형으로 분류하고 태도유형에 따른 개별화된 간호중재를 제언하고 있다. 송지호 등(1993)은 모유수유를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한 경험이 있는 영유아 어머니의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과 실천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식과 태도를 포함한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정도가 높을수록 모유수유 실천을 잘한다고 하였고, 변수자, 한경자, 이자형(1994)은 모유수유에 대한 정보를 받은 사람은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며 긍정적인 태도는 모유수유의 선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Baisch et al.(1989)은 임부의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와 수유결정과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임신동안의 수유방법에 대한 결정과 실제 모유수유 실천과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고 Dusdieker et al.(1985)은 산후측정시 모유수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걱정을 덜하는 것, 자신감이 모유수유 기간과 관련되었다고 하였다. Kearney(1988)는 모유수유행위의 주요 예측요인으로 모유수유에 대한 신념

과 태도를 들었는데 이런 견해들은 가족, 친지, 배우자와 대중매체 및 건강관리 제공자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일부 농촌지역 모유수유 영아모와 비모유수유 영아모의 모유수유에 관한 지식과 태도를 비교해 보기 위한 서술적 비교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2000년 8월 28일부터 9월 28일까지 D군의 보건소 예방접종실을 방문한 6개월 이하의 영아를 가진 어머니를 대상으로 모유수유군 35명, 비모유수유군 30명인 총 65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방법은 일 보건소의 예방접종실을 방문한 어머니 중 현재 아기의 연령이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인 영아를 가진 어머니로서 연구목적을 설명한 후 연구에의 참여를 수락한 어머니 65명을 편의표집 하였으며 설문지를 배부하여 기입하게 한 후 직접 회수하였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한 모유수유 지식 측정 도구는 정문숙 등(1994)이 개발한 모유수유 지식 측정도구를 사용하였으며 모유수유에 관한 지식정도는 '예' '아니오'로 응답하게 되어 있어 정답문항수를 계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정도가 높은 것으로 간주하였다. 모유수유에 관한 태도 측정 도구는 신희선과 전미양(1996)이 개발한 모유수유 태도 및 지식 질문지에서 태도에 관한 10문항의 Likert type의 등간척도로 구성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신과 전(1996)은 이 도구의 신뢰도를 Cronbach alpha .79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71 이었다.

4.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PC+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이용하였으며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정도는 각 문항별로 정답자와 오답자의 비율과 빈도 및 평균점수를 산출하였고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는 각 항목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산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모유수유의 지식과 태도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보았으며 모유수유지식과 태도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산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모유수유군과 비모유수유군의 일반적 특성을 비교한 결과 연령, 교육정도, 월수입, 직업, 자녀수 등의 특성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두 군 모두에서 연령은 25-29세가 가장 많았고 교육은 고졸이상, 월수입은 100-200만원이 가장 많았으며 직업유무는 모유수유군 85.7%,비모유수유군 83.3%에서 직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녀수는 두 군 모두 2명이 가장 많았다.

분만방법의 비교에서 모유수유군은 자연분만이 62.9%, 제왕절개 37.1%로 비모유수유군의 자연분만 40%, 제왕절개 60%와는 반대되는 양상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65)

특 성	구 분	모유수유군 실 수	모유수유군 백 분 율	비모유수유군 실 수	비모유수유군 백 분 율	χ^2	p 값
연령	24세 이하	2	5.7	2	6.6	.027	0.96
	25-29세	15	42.9	14	46.7		
	30-34세	15	42.9	11	36.7		
	35세 이상	3	8.5	3	10.0		
교육정도	중졸	0	0	3	10.0	0.17	0.67
	고졸	24	68.6	19	63.3		
	대졸이상	11	31.4	8	26.7		
월수입	100만원 미만	0	0	0	0	0.08	0.76
	100-200만원	17	48.6	16	53.3		
	200만원 이상	8	22.8	9	30.0		
	무응답	10	28.6	5	16.7		
직업	유	5	14.3	5	16.7	0.07	0.79
	무	30	85.7	25	83.3		
자녀수	1명	13	37.1	11	36.7	0.60	0.74
	2명	15	42.9	15	50.0		
	3명 이상	7	20.0	4	13.3		
분만방법	자연분만	22	62.9	12	40.0	3.38	0.06
	제왕절개	13	37.1	18	60.0		
모유수유 정보 들음	있다	21	60.0	13	43.3	1.80	0.17
	없다	14	40.0	17	56.7		
모유수유 결정시기	임신 전	26	74.3				
	임신 중	5	14.3				
	분만 후	4	11.4				

을 보였고 이렇게 모유수유군에서 자연분만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김미종(1995)이 모유수유 실천에 영향을 주는 변수 중의 하나로 분만형태를 제시한 것과 다른 모든 변수들이 유사하고 분만형태의 변수만을 다르게 하였을 때 완전 모유실천율은 정상분만시 51.4%, 제왕절개시 18.1%로 제왕절개군의 모유수유율이 유의하게 낮았다고 한 김금숙(1990)의 연구나 생후 1개월 째의 완전 모유 실천율을 비교하여 정상 질분만 58.8%, 제왕절개 46.8%로 같은 결과를 제시한 박인화, 황나미(1994)의 연구결과 및 이자형, 변수자, 한경자(1994)의 모유수유 실천 관련변수로 분만형태를 제시한 것과 일치되는 결과로 제왕절개 산모에 대해 모유수유 저해요인을 극복하는 보다 개별적이고 강화된 모유수유 실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성을 확인한 결과라 하겠다.

또한 모유수유 정보를 들은 경험은 모유수유군이 60%, 비모유수유군이 40%이며 모유수유에 관한 정보를 들은 적이 없다고 한 비율이 전체 대상자 중 47.7%로 나타난 것은 권숙희(1993)의 부산, 경남지역 병원 및 보건소의 영유아 크리닉을 방문한 201명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모유수유 정보가 없는 비율 26.9%보다 높고 김화숙(1991)의 서울시내 6개 보건소 영유아

실에 예방접종을 받기 위해 방문한 초산모 106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모유에 대한 정보의 습득이 전체 대상자의 78.3%인 것과 비교해 본 연구가 일 농촌지역이고 대상자 수가 적어 연구결과를 확대 해석하기에는 제한점이 있으나 농촌이라는 지역적, 환경적 특성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여져 농촌지역 임부나 산모들을 대상으로 보건소나 병원에서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전문인들의 보다 적극적인 모유수유 관련 활동이 요구되는 결과라 하겠다.

본 연구에서 모유수유군의 모유수유 결정시기가 임신 전이 74.3%로 나타난 것은 임신 전이나 임신 초기에 모유수유를 계획한 경우 모유수유율이 유의하게 높다는 김화숙(1991)의 연구결과나 모유를 먹이기로 계획한 기간과 모유수유 지속시기와는 관계가 있다는 Loughlin et al.(1985)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분만 후가 아니라 임신 전부터 가임 여성을 대상으로 모유수유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는 결과라 하겠다.

2. 모유수유 지식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모유수유군과 비모유수유군의 지식정도의 차이

모유수유군과 비모유수유군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지식정도의 차이를 보면 연령과 월수입, 직

〈표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정도 (N=65)

특 성	구 분	모유수유군의 지식점수	t or F	비모유수유군의 지식점수	t or F
연령	24세 이하	13.00	.27	13.00	.57
	25-29세	13.80		12.07	
	30-34세	14.20		13.27	
	35세 이상	13.67		11.00	
교육정도	중졸		-1.95	11.67	1.74
	고졸	13.50		11.90	
	대졸이상	14.82		14.13	
월수입	100만원 미만		-1.97		.24
	100-200만원	13.35		12.75	
	200만원 이상	15.00		12.44	
직업	유	14.60	.85	11.80	-.54
	무	13.80		12.60	
자녀수	1 명	14.15	3.72 *	12.18	.18
	2 명	14.47		12.80	
	3 명 이상	12.29		12.00	
분만방법	자연분만	14.45	2.28 *	13.17	1.04
	제왕절개	13.00		12.00	
모유수유 정보들음	있다	14.10	.67	12.85	.60
	없다	13.64		12.18	
모유수유 결정시기	임신 전	13.85	.20		
	임신 중	13.80			
	분만 후	14.50			

*P<0.05

업에 따른 지식정도의 차이는 없었으며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지식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런 결과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지식이 높다는 Beske와 Gravis(1982)의 연구나 성(2000)의 연구결과 및 박선애(1997)의 교육정도에 따라 지식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표본의 크기가 적은 제한점 때문일 수도 있으므로 모유수유 지식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해서는 대상자를 확대해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두 군 모두 자녀수가 2명인 경우 모유수유 지식 점수가 가장 높았고 자녀수에 따라 모유수유 지식점수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05$). 또 자연분만과 제왕절개의 분만형태에 따라 지식점수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고($P<0.05$) 자연분만한 모유수유군의 지식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일반적 특성에서 자연분만한 군이 모유수유 실천율이 높았으므로 모유수유를 하면서 모유수유에 대한 많은 지식이 축적된 결과라 보여진다.

또한 모유수유 정보를 들은 군이 정보가 없는 군보다 지식점수가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내지 않았고 모유수유 결정시기가 임신 전, 임신 중보다 분만 후에 모유수유를 결정한 경우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지식점수가 높게 나타난 것은 분만 후에 모유수유를 결정하면서 모유수유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 모유수유 정보와 지식을 추구하면서 최근에 입력된 모유수유 관련 지식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2) 모유수유군과 비모유수유군의 모유수유 지식정도의 차이

본 연구에 있어 모유수유군과 비모유수유군간에 모유수유지식에 있어 유의한 차이($P<.05$)가 난 것은 산모를 대상으로 모유수유 결정집단과 인공수유 결정집단간에 모유수유 지식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난다고 한 신과 전(1996)의 연구 및 김숙영(1994)의 연구, 모유수유에 관한 정보의 깊이와 정확성은 모유수유 성공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한 Rentschler(1991)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지식이 모유수유 실천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어 모유수유의 장점과 모유수유 방법, 모유수유시의 어려운 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폭넓고 정확한 정보의 제공이 모유수유를 증진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 방법임을 확인한 결과라 하겠다.

〈표 3〉 모유수유군과 비모유수유군의 모유수유 지식정도의 차이 (N=65)

	평균	표준편차	t	P
모유수유군(n=35)	13.91	1.93	2.34	.023
비모유수유군(n=30)	12.47	3.01		

3) 대상자의 모유수유 지식 문항의 평점

가장 높은 정답율을 보인 항목은 '초유에는 면역물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97%)로 성미혜(2000)나 송지호(198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여 초유의 면역성분 함유는 대부분의 영아모가 알고 있다고 보여지며 그 다음이 '모유를 먹는 아기는 우유를 먹는 아기보다 변이 묽다'(88%), '유방이 작으면 젖의 분비량도 충분치 못하다'(86%)의 순이었다. 성(2000)이나 송(1989)에서 높은 정답율을 보인 '모유수유는 산후의 체중조절에 도움을 준다', '수유기간이 길수록 유방암 발생율이 낮다' 등 모유수유가 어머니에게 주는 잇점에 대해서는 정답율이 더 낮아 이런 내용이 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유가 모유보다 콜레스테롤이 많다', '한 시간이내에 젖을 물리는 것이 이상적이다', '황달시 반드시 모

〈표 4〉 대상자의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문항의 평점

문 항	정답 No.(%)	오답 No.(%)	평 균	표준편차
1. 초유는 분만 후 약 일주일동안 분비된다.	52(80)	13(20)	0.80	.40
2. 초유는 성유보다 수용성비타민을 많이 함유한다.	52(80)	13(20)	0.80	.40
3. 초유는 아기의 뇌발달을 자극시킨다.	51(78.5)	14(21.5)	0.79	.41
4. 초유에는 면역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63(96.9)	2(3.1)	0.97	.17
5. 모유의 단백질 함량은 아기의 성장에 약간 부족하다.	47(72.3)	18(27.7)	0.72	.45
6. 우유먹고 자란 아기는 알레르기 등의 이환율이 낮다.	34(52.3)	31(47.7)	0.52	.50
7. 우유에는 모유보다 콜레스테롤이 많다.	22(33.8)	43(66.2)	0.34	.48
8. 우유는 모유보다 비만예방에 도움이 된다.	50(76.9)	15(23.1)	0.77	.43
9. 수유기간이 길수록 유방암 발생율이 낮다.	52(80.0)	13(20.0)	0.80	.40
10. 모유수유는 산후의 체중조절에 도움을 준다.	52(80.0)	13(20.0)	0.80	.40
11. 출생후 한 시간이내에 젖을 물리는 것이 이상적이다.	30(46.2)	35(53.8)	0.46	.50
12. 부적절한 수유자세는 유두균열을 발생시킬 수 있다.	41(63.1)	24(36.9)	0.63	.49
13. 유즙의 분비는 대개 분만후 5-6일부터 시작된다.	33(50.8)	32(49.2)	0.51	.50
14. 젖은 계속적으로 자주 빨리면 수년동안 분비된다.	39(60.0)	26(40.0)	0.60	.49
15. 유방이 작으면 젖의 분비량도 충분치 못하다.	56(86.2)	9(13.8)	0.86	.35
16. 아기에게 황달이 나타나면 반드시 모유수유를 금해야 한다.	30(46.2)	35(53.8)	0.46	.50
17. 모유를 먹는 아기는 우유를 먹는 아기보다 변이 묽다.	57(87.7)	8(12.3)	0.88	.33
18. 모유수유는 어머니의 골다공증을 예방한다.	39(60.0)	26(40.0)	0.60	.49
19. 인공수유아는 모유수유아보다 언어능력이 높다.	50(76.9)	15(23.1)	0.77	.43
20. 모유 속에는 백혈구가 있어 아기의 충치를 예방한다.	11(16.9)	54(83.1)	0.17	.38

유수유를 금해야 한다', '모유수유는 백혈구가 함유되어 있어 충치를 예방한다' 등의 낮은 정답율을 보인 항목에 대해서는 모유수유 교육시 강화해야 할 부분으로 보여진다.

3. 모유수유 태도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모유수유 태도

모유수유 태도는 고졸의 교육정도를 가진 군, 수입이 100-200만원이고 직업이 없으며 자녀수가 3명 이상이고 모유수유 정보를 들은 경험이 있는 군에서 점수가 가장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모유수유 결정시기가 임신중이나 분만 후보다는 결혼전이나 결혼하면서인 군이 모유수유 태도 점수가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으나 자녀수가 많을수록 모유수유 태도 점수가 높게 나타난 것은 변수자, 한경자, 이자형(1994)의 연구에서 출생순위 중 셋째아기의 대상자에서 태도점수가 높게 나타난 것과 일치하는

〈표 5〉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 (n=65)

특 성	구 분	모유수유군의 태도점수	t or F	비모유수유군의 태도점수	t or F
연령	24세 이하	42.50	.05	42.00	.41
	25-29세	41.87		38.29	
	30-34세	41.53		37.55	
	35세 이상	41.53		37.67	
교육정도	중졸		-.36	40.00	.40
	고졸	41.54		38.42	
	대졸이상	42.09		37.00	
월수입	100만원 미만		1.43		-.17
	100-200만원	42.53		38.06	
	200만원 이상	40.50		38.44	
직업	유	39.80	-1.12	36.40	-.85
	무	42.03		38.56	
자녀수	1 명	41.08	.77	36.73	.71
	2 명	41.47		38.93	
	3 명 이상	43.43		39.50	
분만방법	자연분만	41.27	-.82	37.42	-.67
	제왕절개	42.46		38.72	
모유수유 정보들음	있다	41.71	.00	39.69	1.41
	없다	41.71		37.06	
모유수유 결정시기	임신 전	42.27	.99		
	임신 중	39.60			
	분만 후	40.75			

것으로 출산회수가 더해감에 따라 모유수유에 대한 어머니의 경험이 축적되어 모유수유에 대한 정보 및 기술을 습득하게 됨으로서 어머니의 모유수유 태도가 긍정적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또한 비모유 수유군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태도점수가 낮게 나타난 것은 권은경(1982)의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모유영양이 감소하고 인공영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와 연관시켜 교육수준이 높은 어머니에 대해 산전관리시에 보다 더 긍정적인 모유수유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함으로써 모유수유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제시하는 대목으로 이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다.

2) 모유수유군과 비모유수유군의 모유수유 태도의 차이

본 연구에서 모유수유군과 비모유수유군의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에서 유의한 차이(P<.01)가

나타난 것은 Baisch(1989)의 연구결과 및 모유수유행위의 주요 예측요인으로 모유수유에 대한 신념과 태도를 제시한 Kearney(1989)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라 하겠다. 그러나 신과 전(1996)의 산모를 대상으로 모유수유결정집단과 인공수유결정집단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한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이것은 실제 수유 전에는 두 집단 모두 모유수유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어 차이가 없으나 실제 수유를 실천해 가면서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가 바뀌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표 6〉 모유수유군과 비모유수유군의 모유수유 태도의 차이

	평균	표준편차	t	P
모유수유군(n=35)	41.71	4.14	3.05	.003*
비모유수유군(n=30)	38.20	5.16		

4. 모유수유 지식과 태도간의 상관관계

〈표 7〉 모유수유지식과 모유수유태도간의 상관관계

집단	지식/태도(r 값)	P 값
모유수유군	-.24	0.168
비모유수유군	.22	0.238
전체	.15	0.250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과 태도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r=.15, P=.25) 지식과 태도간에 높은 상관관계를 보고한 신과 전(1996)의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은 결과라 하겠으나 모유수유에 관한 많은 지식이 있다고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 되지는 않는다고 하면서 모유수유에 관한 지식정도와 태도간에는 관계가 없다고 한 박선애(1997)의 연구결과와는 일치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표본의 크기가 적은 결과일 수도 있으므로 보다 더 많은 대상자를 포함해 변수간의 관계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Ⅴ.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모유수유를 하고 있는 영아모와 인공영양을 하고 있는 영아모의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과 태도 정도를 비교해 보기 위해 2000년 8월 28일부터 9월 28일까지 6개월 이하의 영아를 가진 어머니 65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법에 의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연구도구는 정문숙 등(1994)의 모유수유 지식측정 도구와 신희선과 전미양(1996)이 개발한 모유수유 태도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정도의 차이는 모유수유군에서 자녀수(F=3.72, P<0.05)와 분만방법(T=2.28, P<0.05)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모유수유군이 비모유수유군보다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정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34, P<.05).
3) 모유수유군이 비모유수유군보다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정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3.05, P<.01).
4)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과 태도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2. 제언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모유수유군이 비모유수유군에 비해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과 태도 정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과 태도가 모유수유 실천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임을 확인한 결과라 할 수 있으므로 모유수유 프로그램 속에 지식과 태도에 대한 교육 및 강화의 간호중재가 다시 한번 강조되어야 하겠다.

2) 본 연구 대상자의 47.7%가 모유수유에 관한 정보를 들은 적이 없다는 것은 다른 연구 대상자와 비교해 모유수유 정보의 습득율이 상당히 낮은 것을 반영하므로 농촌이라는 지역적인 특성을 감안해 보건소 등지에서 더욱 활발한 모유수유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될 필요성을 알려주는 것이라 보고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안한다.

3) 본 연구에서 모유수유군의 74%에서 모유수유 결정시기가 임신 전으로 나타난 것은 산후 모유수유 교육프로그램의 제한점을 나타낸 것으로 분만 후보다는 가임 여성을 대상으로 한 모유수유 홍보나 임신기간 중에 모유수유를 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교육프로그램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권숙희 외(1994). 모유수유 실천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모자간호학회지. 3(2), 172-186.

권은경(1982). 서울시내 일부 아파트지역과 일부 농촌지역의 모유수유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금숙(1990). 분만방법에 따른 영유아의 수유실태에 관한 비교연구. 최신의학. 33(8), 107-112.

김미종(1995). 산후 모유수유 교육프로그램이 모유수유 실천에 미치는 효과.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숙영(1994).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과 수유실천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혜숙(1992). 수유전문간호사의 역할과 업무지침. 대한간호, 31(1), 28-34.

김혜숙(1995). 모유수유 전화상담 내용의 분석, 간호학회지, 25(10), 17-29.

김화숙(1991). 모유수유를 실천했던 초산부의 모유수유 지속요인 분석.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대한간호협회(1995).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결과 보고서, 대한간호협회.

박선애(1997). 영아 어머니의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실천. 중앙의학, 62(3), 257-265.

박인화, 황나미(1994). 모유수유실태분석과 지원정책의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방매륜(1983). 출산에 관한 한국의 전통문화가 모유수유 실천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변수자(1995). 취업모의 모유수유 실태와 지속방안.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2), 137-152.

변수자, 한경자, 이자형(1994). 모유수유 형태와 모유수유에 대한 어머니들의 태도 연구. 모자간호학회지. 4(1). 52-67.

송규희(1989). 서울 시내 일부 병원에 내원한 임신부들의 모유수유에 관한 태도 및 지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송지호, 김순애, 문영수, 박영주, 백승남, 변수자, 이남희, 조결자, 조희숙, 최미혜, 최

양자(1994). 영유아 어머니의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 및 실천에 관한 연구. 모자간호학회지, 3(2), 153-165.

신선숙(1985). 영아영양에 대한 태도와 태도형성에 관련된 요인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희선, 전미양(1996). 모유수유 결정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아동간호학회지, 2(2). 35-43.

오현이, 박난준, 임은숙(1994). 성공적인 모유수유를 저해하는 요인에 관한 분석 연구. 모자간호학회지, 4(1), 68-77.

이경혜(1992). 국내 모유수유의 실태. 생활간호, 12, 114-116.

이미자(1994). 모유수유 저해요인에 대한 산모와 신생아실 간호사간의 인식정도 비교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미자(1995). 모유수유 저해요인에 대한 산모와 신생아실 간호사간의 인식정도 비교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1), 108-119.

정귀영, 이근(1983). 모유 실패의 원인. 소아과, 26(6), 527-531.

정금희(1996), 모유수유 증진 간호중재 프로그램이 초산모의 모유수유 실천에 미치는 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정문숙, 김미예, 고효정, 김신정, 박명희, 신영희, 송인숙, 이수연, 이인혜, 정귀애, 정승은(1994). 간호사의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과 간호활동 정도. 모자간호학회지, 3(2). 187-196.

정혜경, 이미라(1993). 임부의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 유형 분석. 모자간호학회지, 3(2). 127-141.

조미영(1992). 모유수유를 저해하는 요인과 모유수유 권장을 위한 방안. 대한간호, 31(1), 28-34.

지미숙, 강길원(1974). 일부 서울지역 영아영양에 대한 조사연구. 공중보건잡지. 11(1).

최영희, 김혜숙, 박현경, 이영희(1996). 모유수유부의 모유수유실천에 따른 관련요인 분석. 대한간호, 35(5), 98-109.

Baish, M. J., Fox, R. A., Whitten, E. & Pajewski, N.(1989). Comparison of breastfeeding attitudes and practice; Low income adolescents and adult women. M.C.N., 18(1), 61-71.

Beske, E., Marcelene, S. G.(1982). Important Factors in Breast-feeding success. MCN, 7(33), 62-66.

Brown, F., Lieberman, J., Winston, J., & Pleshette (1960). Studies in choice of infant feeding by primiparas. Psychosomatic Medicine, 22(6), 421-429.

Dusdieker, L., Booth, B., Seals. B. & Ekwo. E. (1985). Investigation of a model for the initiation of breast feeding in primigravida women. Social Science and Medicine, 20, 695-703.

Eastham, E., Smith, D., Poole, D. & Neligam, G.(1976). Futher Decline of Breastfeeding. British Medical Journal, 1, 305.

Gulick, E. F.(1982). Informational correlates of succesful breast feeding. MCN, 7, 370-375.

Kearney, M. M.(1988). Identifying psychosocial obstacles to breast-feeding success. IOGNN, 14(2), 114-118.

Loughlin, H. H., Clapp-Channing, N. E., Gehlbach, S. H., Pollard, J. C., McCutchen, T. M.(1985). Early termination of breastfeeding: Identifying those at risk.

Pediatrics, 75. 508-513.

Martines, J. C. & Zoysa, I.(1992). Breast feeding in the first 6 Months. British Medical Journal, 304. 1068-1069.

Rentschler(1991). Correlates of Successful Breast. Image, 23(3). 151-154.

ABSTRACT

key concept : Breast feeding knowledge, Breast feeding attitude

Comparative study on differences of knowledge and attitude level of breast feeding between breast feeding mothers and bottle feeding mothers.

Sim, Mi Kyung* · Kim, Mi Jo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of knowledge and attitude level of breast feeding between breast feeding mothers and bottle feeding mothers. The subjects were mothers of 65 infants 1-6 months of age.

Data were collected by a questionnaire on knowledge of breast feeding developed by Jung et al.(1994) and on attitude of breast feeding developed by Shin and Jeon(1996).

The data was statistically analyzed according to Frequency, t-test, ANOVA and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Degree of knowledge of breast feeding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child number($F=3.72$, $P<0.05$) and delivery pattern($T=2.28$, $P<0.05$) in breast feeding mothers.
2)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on knowledge of breast feeding between breast feeding mothers and bottle feeding mothers $t=2.34$, $p<.05$).
3) There was a statistical significant difference on attitude of breast feeding between breast feeding mothers and bottle feeding mothers $t=3.05$, $p<.01$).
4) The correlation between the mother's knowledge and attitude level of breast feeding was not foun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suggest that systematic and supportive breast feeding program including knowledge and attitude of breast feeding have to be provided by nurse to mothers of infants to take an important role in breast feeding.

* Department of Nursing, Shinsung junior college
** Department of Nursing, Daejeon University